

배추包裝化 流通改善 大要件인

## 배추의 需給安定과 價格 安定政策 提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경제연구부  
경제학박사 허길행

### 1. 머리말

표준규격화는 농산물 유통 선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표준규격화가 되어야만 선진유통기법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고, 통명(通名)거래를 통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농산물은 표준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상품을 일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을 증대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에 있어 배추는 포장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배추는 농산물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품목이며, 포장이 되지 않고 산물거래를 하고 있는 몇 안되는 품목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996년도 배추의 거래량은 363천톤으로 전체 거래량의 16.2%에 이르고 있다.

### 2. 배추포장의 경제적 효과

배추를 포장화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송·하역·보관 업무를 기계화함으로써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의 하역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하역의 기계화는 도매시장 유통효율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유통중 감모량을 줄일 수 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996년 8월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의 결과 감모율이 산물출하시 15%에서 포장출하시 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배추 포장화를 시행할 경우에는 13%의 간접적 증산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포장화를 통해 감모량이 줄어들면, 쓰레기의 감소효과가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어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쓰레기는 악취에 의한 도시 공해를 유발하고 산적된 쓰레기더미로 시설이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유발하여 유통비용을 증대시킨다.

1996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5,728백만원이며,

이중 배추 쓰레기 처리비용이 3,258백만원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추 포장화로 감모율이 15%에서 2%로 줄어들면, 1996년기준으로 연간 4,964백만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인건비의 상승과 쓰레기 매립지의 제한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배추의 포장화는 도매시장의 도시공해를 줄이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유통비용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포장화를 통해 배추의 품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포장을 하여 운반할 경우, 운반중 압상(壓傷)이나 여름철 통기(通氣)부족으로 인한 부패와 변질을 줄임으로서 신선한 상품을 소비지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상품성의 향상은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여 생산자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 선호도가 높아짐을 고려할 때 상품의 품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배추포장화의 선결요건

배추 포장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포장출하를 하는 출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표 1>은 지난해 8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포장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출하비용의 분석 결과, 산물출하에 비해 포장출하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모량을 제외한 실제 도매시장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물출하시에는 포기당 573.3원이 소요되던 것이 포장출하를 하면 391.9원이 소요됨으로써 포장출하시 도매시장 단계까지 포기당 181.4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장출하시 포장자재비가 차량당 451,400원 더 소요 되는데 반해, 쓰레기 유발부담금·청소비·다듬기 비용 등 도매시장비용은 397,200원이 감소하고, 감모량 감모에 따른 이익이 439,200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청소비와 다듬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중도매인이 부담을 하며, 그 비용이 경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출하자와는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출하자가 포장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배추의 경매가격이 산물출하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감모량 감소에 따른 이익이 포장자재비를 보상하고도 남아야 한다. 그러나 상관행상 포장출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배추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포장출하 촉진을 위해 포장자

<표 1> 포장출하와 산물출하 비용 비교분석

단위 : 원/대(5톤 트럭 기준)

비용 항목	비 용		비 고
	포장출하	산물출하	
산지작업비			
인건비	260,000	260,000	
포장자재비	491,400	40,000	포장자재비 : 포장출하는 상자당 4포기(2,808포기 적재)포장, 상자대 700원을 계산, 산물출하는 신문용지대 (3,000포기 적재)
계	751,400	300,000	
수송비	230,000	250,000	
도매시장 비용			
쓰레기 유발부담금	-	18,000	
하역비	37,000	37,000	
청소비	-	40,000	
다듬기 비용	-	340,000	
파렛트 사용료	800	-	
계	37,800	435,000	
감모비용	59,360	477,000	감모율 : 포장출하 2%, 산물출하 15%(포기당 1,060원 적용)
계	1,078,560	1,462,000	
포기당 비용	391.9	573.3	감모를 제외한 실적재량 기준(포장출하 2,752포기, 산물출하 2,550포기)

재비를 보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결국 포장출하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배추의 포장출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모량 감소에 따른 이익이 포장자재비를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포장화에 따른 보상(수고비와 인센티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모량 감소에 따른 이익은 배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감모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배추가격이 상승하면 감모량 감소에 따른 이익은 증가되며,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한다.

결국 포장자재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배추 출하자가 포장출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배추 가격에 달렸다고 보아야 한다. 배추 가격이 높으면 포장출하가 되고, 낮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배추의 가격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매우 심하다. 가격하락이 심할 때에는 도매시장 판매가격이 출하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출하자가 상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추의 지속적인 포장출하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배추 포장출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추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배추 가격의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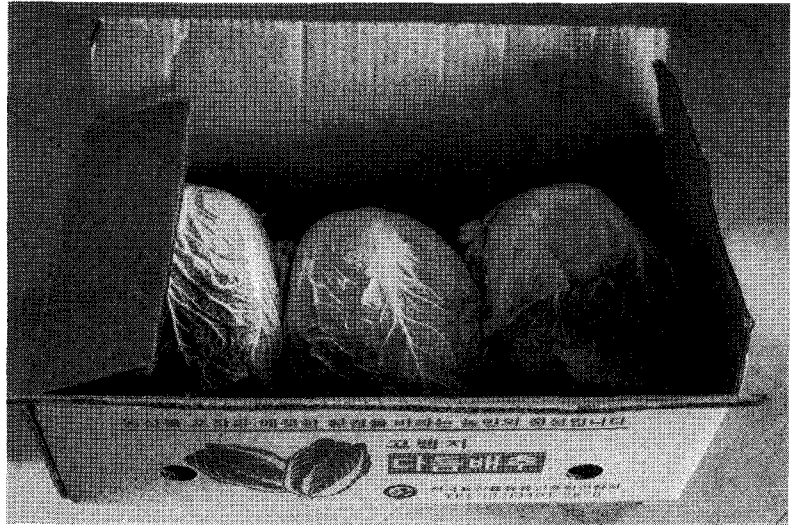
배추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급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추는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으며, 기후 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이 심하여, 공급량과 가격이 특히 불안정한 상품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서 작년 여름 고랭지 배추의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

측되었으나, 뒤늦게 기온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준고냉지의 배추가 폭삭하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배추의 생산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배추는 부패성이 강하고 부피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에서 즉시 수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공급의 안정화가 어렵다. 반면 김치는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요는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불안정하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배추 농사가 투기화하는 경향마저 있어 배추 공급을 더욱 불안정화하고 있다.

### 5. 배추의 수급안정화

배추수요는 비교적 일정하나, 공급의 증은 대단히 복잡하다. 이에 정부에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만성적 과잉생산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늘어날 뿐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배추 농사가 생산주기가 짧고 단위당 생산량이 많아 가장 쉬운데, 가격까지 보장해 준다면 모든 농민이 배추 농사에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배추 가격안정 정책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배추의 가격안정 정책은 즉응적(卽應的)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시장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면 긴급히 일정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폐기처분하거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폐기처분



토록 한 후 보상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면 『예비 묘』를 확보하고 있다가 재배면적을 즉시 확보하거나 저장·가공 물량의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관측 등 유통정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필요한 공급물량을 즉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생산자의 자율적 공급조절기능을 약화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가격 불안정을 가속시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정부의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수 있다.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농업관측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에게 사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소유통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여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작목

반 또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함으로써 재배면적을 안정화하고 출하시기를 조정토록 하며, 저장·가공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공급부족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업점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에 비추어 이들 대형소매점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